

< 나를 만져보라 >

누가복음 24:36-43 / 새찬송가 160 (통일 150) 무덤에 머물러

1.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

인생의 본질은 투쟁입니다.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쁜 것 즉 죄악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. 예수님은 그 나쁜 것 중 가장 나쁘고 강한 원수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.
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세계에서 일어난 일로써 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. 왜냐하면 죽음이란 최후의 적, 그야말로 가장 강한 원수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(고전15:26). 예수님이 사망권세를 이기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와 정죄와 질병과 저주와 그 외 모든 악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었습니다(롬8:35-37).

2.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

먼저 나쁜 것이 사라져야 좋은 것이 주어집니다. 요셉도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. 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.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시어 가장 나쁜 악을 제거하고 용서하시기 위함이며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‘의롭다하심’을 주시기 위함입니다(롬 4:25).

예수님은 원래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해주셨습니다(시16:9,10).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자, 용서 받은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

3.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입니다

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‘육신의 부활’입니다! 가현설 즉 예수님이 ‘우리과 같은 진짜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보인 것이다’는 생각은 이단에서 나온 것입니다. 예수님은 실로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몸으로 죽으셨습니다(요19:31-34).

예수님의 부활도 육신의 부활이셨습니다. 결코 유령처럼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(눅 24:37-39)!

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몽상적이거나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. 주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생생한 이 세상의 현실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. 그 증거로 사도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(행9:36-42).

4. 예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

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뤄집니다.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. 이는 혈루증으로 열 두해를 고통 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그녀가 고침 받게 된 상황과 유사합니다.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으로써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. 이처럼 만진다는 것은 다만 만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.

우리가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생각하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. 관계가 존재에 앞서는 것이지만 존재가 관계에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. 이처럼 주님과 관계에서 나온 모든 생각 판단 언행 생활이 내 존재에서 나온 모든 생각 판단 언행 생활을 물리쳐야 합니다.

그것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관계를 맺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름길입니다!

<적용&실천>

우리는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생각한 것을 갖고 그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다음 주님의 뜻을 구합시다.